

주제회의[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도시의 생물다양성, 도시의 생명들

2022. 10. 12.(수) 13:00-15:30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배경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서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또는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필요로 한다. 자연생태계가 하나의 사슬처럼 촘촘히 엮여 있을수록 물과 공기,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기후위기는 생물다양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급격한 기온변화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준다. 홍수, 가뭄, 질병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져 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면 먹이사슬에 연결된 다른 생물종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결국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의 행위로 인한 파괴는 결국 자연뿐 아니라 인간도 파괴한다.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길은 결국 인간의 삶도 편하게 만든다. 말 못하고, 힘없는 생명들에 대한 경시는 약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생물다양성 보존 방안 확대를 위해 주제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목표

생물다양성은 지구상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생물종이 다양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생물종의 기반이 되는 각각의 생태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물종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하기 쉬우며, 종의 분화 또는 진화의 가능성도 높다.

우리가 생물로부터 식량, 의약품, 건축물과 각종 물품 원료 대부분을 얻고 있다. 생물은 정화작용을 통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지구에 공급해주며,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막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제 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회의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내·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의 생명들, 광주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의 확산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

1.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관계와 문제점
2.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장록습지, 조류충돌 방지활동 등)
3.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법안, 시행계획 확대방안

